

참사 유가족들, 아픔 넘어 연대… “서로간 위로·애도”

제주항공·이태원 참사 유족들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 참여
“기억하지 않으면 참사 반복돼”
사단법인 설립 등 대응책 공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제주항공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추모 행사장을 찾았다. 생생한 아픔을 공유한 이들은 말없이 조문하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아직 사고 조사와 법적 대응 초기 단계에 있는 유족들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받은 위로에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입을 모았다. 참사를 겪은 이들의 연대는 슬픔을 나누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 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오후 목포 달동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 실천회’가 주관하는 11번째 기억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12·29제주항공여객기 참사유가족, 10·29이태원참사가족협의회 등 다른 참사 피해 유족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참사 수습 때 방문해 전해줬던 세월호 유족들의 위로와 응원을 잊을 수 없다고 기억식 방문의 이유를 설명했다. 큰 아픔을 겪은 유족들이 함께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세월호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6일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서 열린 ‘세월호 11주기 목포기억식’에서 희생자를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이 같은 위로의 릴레이는 세월호 유족들 방문이 첫 시작이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때, 처음 현장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도 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 조문했다. 슬픔을 넘어서 연대의 정신은 참사 유족들 모두에게 퍼져 이태원 유족들은 다시 제주항공 참사에, 제주항공 유족들은 또 다시 이번 세월호 기억식까지 참석하는 동행을 만들었다.

장동원 세월호참사 유가족협의회 총괄 팀장은 “짧은 만남 속에 많은 위로가 오갔다”고 참사 유족들의 연대 활동을 설명했다.

장 팀장은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참사가 계속 이어졌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조문을 가고 위로는 나누는 방식이다”고 교류의 방식을 말했다.

이어 “크게 말은 못 나누지만 같은 참사

를 겪은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며 “감정적으로 너무 고되기 때문에 간단히 조문하고 인사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도 지난 5일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추모제’에 세월호 유족 및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방문해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유찬 제주항공 참사 언론홍보본부장

은 “이번 세월호 행사에는 저희 유족 5명이 참석했다”며 “다른 참사의 유족분들이 직접 참사 때 찾아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생생하다. 그때 받은 마음이 지금도 감사하게 남아 있고, 이번 행사 참석도 작지만 진심 어린 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백 이태원유가족협의회는 참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된다며 서로간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참사는 기억해야 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서로간의 위로와 애도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이기 때문에 서로 아픈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다. 함께 연대해 억울함과 슬픔을 풀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추진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과 유족들의 대응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사단법인 설립 등 정관 작성이나 내부 조직 구성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논의하기도 한다”며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정이 어려워 저희가 겪어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참사의 깊은 아픔을 넘어 연대와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을 5·18 전야제 행사 11년만에 토요일 개최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 주제
플래시몹·주먹밥 만들기 등 다채

45돌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민간 단체 주도의 전야제가 11년 만에 토요일에 개최된다.

제45주년 5·18 민중항쟁행사위원회(행사위)는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야제를 포함한 주요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전야제는 오는 5월17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열리고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 순서로는 금남로와 중앙로를 따라

풍물패가 행진하는 ‘오월길맞이굿’, 이어 1980년 항쟁 당시의 가두시위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진다. 무대는 기존의 전일빌딩 앞 민주광장 인근에서 금남로4가역 교차로(금남로공원 앞)로 변경된다. 이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세계적으로 조명돼 5·18의 역사적 의미가 국·내외적으로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를 반영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참가자들을 위해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는 500동 규모의 텐트촌이 설치되고 청년 518명이 참여하는 ‘다시 만난 세계’ 플래시몹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다. 해당 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도 불린 바 있다.

시민 참여형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주먹밥 만들기 체험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민중미술 전시, 시민 난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누구나 5·18 정신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12·29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해 5·18 유족들과 상실의 아픔을 나누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오병운 5·18행사위원장은 “5·18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5·18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술자리 도중 흥기 휘두른 20대 초반 남성 ‘구속’

특수상해 혐의…동일전과 확인

술자리를 함께 하던 지인 커플에게 흥기를 휘둘러 1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은 술자리 도중 지인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20분께 서구 화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흥기를 휘둘러 20대 초반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손가락을 베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지인 커플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 남성인 30대 초반 C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부엌에서 흥기를 가져와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B씨가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웃주민의 “고성이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동일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준명 기자

하루 12시간씩 옷 만들던 광주 고3 학생 ‘전국대회’ 출전

본보 인터뷰했던 전남고 광승우 군
광주기능경기대회 의상디자인 1등
9월 광주서 전국기능대회 출전

전문 기능인이나 직업계 고교생들이 주로 입상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지난 11일자 본보 6면에 게재된 <77세 노장·10대 고교생…남다른 기술 열정 ‘눈길’> 기사 중 인터뷰에 응했던 전남고 3학년 광승우(19) 군이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올렸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얼마전 열린 2025 광주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광 군은 ‘의상디자인’ 직종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광주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고

교생은 모두 89명이지만 인문계 고교생은 광 군이 유일하다.

광 군이 금메달을 딴 의상디자인 직종은 짧은 시간에 옷을 완성해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에 대해 광 군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학원에서 옷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광 군은 “어릴 적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다. 기능올림픽이라는 대회를 알게 된 후 흥미가 생겼지만 적합한 학교를 찾지 못해 일반고에 진학했다”며 “이후 학원 등을 통해 꿈을 키워나갔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옷만 만들었다는 광 군은 “앞으로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제 이름을 건 브랜

드 회사를 만들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 대회 수상으로 광 군은 상장·메달·상금을 받는 것은 물론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조난라 전남고 교장은 “인문계 학생도 충분히 기능 경쟁력과 열정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 재능과 열정이 빛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11일 열린 광주기능경기대회에서 광주 직업계 고교생들도 금 27개·은 26개·동 20개·우수 2개·장려 13개 등 모두 88명이 입상했다.

정유철 기자

보이스피싱 수익 250억 자금세탁한 일당 20명 검거

유령법인 동원해 범망 빠져나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250억원 상당을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조직 총괄 수거책인 A씨(56세) 등 12명을 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가로챈 돈을 바로 인출하지 않고 하부 조직원들 계좌를 이용해 입·출금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고 수표로 인출했다.

또한 유령회사인 상품권 법인업체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서 수표를 발행, 다시 현

금화 하는 수법을 썼다. 상품권 거래를 했다는 것처럼 가장해 범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이다.

경찰은 먼저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의 범죄로 지난해 8월~11월 사이 손해를 본 피해자만 104명, 금액은 250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1억 3000만원과 체크카드·통장 45매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을 눌러서는 안 되고,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